

## 2017년 가을, 서울 도심에 건축문화 향연 펼쳐져

세계건축올림픽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비롯한 건축 전시 풍성

올 가을 서울이 건축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한다. 먼저 '건축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가 9월 3일부터 10일까지 코엑스, DDP, 마포문화비축기지 등에서 열린다.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에서는 베이징과 도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서울시와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이 국제건축연맹(UIA)과 공동 주최한다. <UIA 세계건축대회>는 1948년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돼 3년에 한 번씩 5개 대륙을 순회하며 열리는 행사로 전 세계 건축가들이 모여 건축 트렌드와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대회는 '도시의 혼(Soul of City)'이라는 주제 아래 학술대회, 전시, 강연, 건축문화투어 등 총 13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화여대 ECC를 설계한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 2020 일본 도쿄올림픽 주경기장 설계자 겐고 구마, '서울로 7017'을 설계한 네덜란드 건축가 비니 마스 등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기조강연과 포럼에 나선다. 124개국의 건축계 대표들과 도시 대표단, 국내·외 건축가 8천여 명과 건축전공생 2천여 명, 시민 관람객을 포함해 총 3만여 명이 참여한다. 올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행사 중 가장 큰 규모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디자인재단과 공동으로 <2017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를 9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돈의문박물관마을과 DDP 등지에서 개최한다.

초대 총감독은 배형민 서울시립대 교수와 알레한드로 자에라폴로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맡았다. 도시와 건축을 주제로 서울에서 열리는 첫 번째 비엔날레다. 전 세계 도시 50여 곳과 40여 개 대학, 기관 120여 곳을 비롯해 직접 참여 인원만 총 16,200명에 달해 참가규모 면에서 세계적인 비엔날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행사 주제는 '공유도시(Imminent Commons)'로서 총 300여 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환경적·건축적·사회문화적 문제를 풀어갈 방법론으로 공유도시를 제안, 도시가 무엇을, 어떻게 공유할지를 논의하는 장으로 만든다. 서울시는 세계건축대회 및 비엔날레 외에도 <2017 서울건축문화제>(9.1~24), <제9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9.4~24) 등 다양한 건축 관련 행사가 열리는 9월을 '서울 건축문화의 달'로 정했다.

서울시립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도 건축 전시를 개최되어 시민들은 보다 풍성한 건축문화전시를 즐길 수 있다. 서울시립 미술관에서는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기념전: 자율진화도시>(9.3~11.12), <역사풍경: 서소문동 38번지>(9.3~11.12)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는 <종이와 콘크리트: 한국 현대건축 운동 1987-1997>(9.1~2018.2.18.)이 열린다. 박유리 기자



## '2017 우현상' 김상엽, 정현 수상 남과 다른 차별성과 진정성을 인정받아



금년도 우현상 부문별 수상자가 발표됐다. <제30회 우현학술상>에 김상엽 미술사학자가, <제11회 우현예술상>에는 정현 작가가 각각 선정됐다. 우현학술상 심의위원회(방병선, 정우택,

하선규)는 선정이유에 대해 수상자 김상엽의 저서 <미술품 컬렉터들-한국의 근대 수집가와 수집의 문화사>(돌베개 2015)가 "한국 근대기의 미술품 수집과 수집에 대한 치밀한 사료 분석과 광범위한 예증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그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또한 작가와 작품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기존의 미술사 연구와 다르게 작품을 관람, 구매하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파악한 미술시장 연구라는 점이 차별성을 띤다고 평가했다. 우현예술상 심의위원회(방재석, 이종구, 이준)는 수상자 정현이 2016년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개인전 <L'Homme Debout(서있는 사람)>을 대규모 프로젝트로 성공시켜 국내외 미술계의 이목을 끌었으며 무엇보다 활동이 어려운 조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적인 조각가로서의 공적을 이룬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사유를 밝혔다. 우현상은 인천이 낳은 한국 최초의 미학자이자 미술사학자 우현 고유섭(又玄 高裕燮) 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 그의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자 인천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상으로, 우현학술상과 우현예술상 2개 부문으로 시상되며, 공적기간은 2년이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1000만원이 지급된다.

## 서정걸, 제10대 대표이사 취임 <월간미술> 기자 출신 한국도자재단의 수장으로



1년 6개월간 공석이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로 서정걸이 선임됐다. 지난 8월 16일 이천 세라피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정걸 신임대표 이사는 "한국도자산업 발전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실현하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도자문화 융성과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리더로서의 사명에 충실한 도자재단을 만들어 가겠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서 대표는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월간미술> 기자,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큐레이터, 세계도자기엑스포 비엔날레 운영부장, 경기도자 박물관장, 한국도자재단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한국도자재단은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과 함께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되는 도자페어 <2017 G-세라믹 페어>의 본격적인 준비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